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호 [주체 제2334호] 주체 100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당의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승리의 길》 노래 높이 부르며 오늘날의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주체년호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성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온 나라에 노래 《승리의 길》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의 총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울려주신 노래 《승리의 길》은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장엄한 희생성이며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게 하는 전인민적행진곡이다.

우리는 노래 《승리의 길》에 담긴 심원한 혁명철학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어머니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을 빛나게 계속함으로써 김일성조선의 영원무궁할 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제기고 수령님께 승리의 보걸을 드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라는 구상을 펼치고 전단, 전군, 전민이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땅을 따라 천만리를 헤쳐 오고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 깃발이 오직 승리만을 가르쳐주는 준엄한 군대이며 인민이다. 붉은 깃발은 조선혁명가들의 자주적 신념과 의지, 숭고한 이상과 보수의 상징이다. 시련과 역경, 희생과 투쟁을 뚫어주고 용감히 맞받아나기 위하여 승리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전통이다. 폭풍이 사나아 해도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영원히 백승을 가르쳐주는 투쟁의 불꽃은 언젠가는 《승리의 길》노래와 같이 깊은 삶과 투쟁의 철리를 새겨주며 찬만신강을 계속혁명의 의지로 불타게 하는 신념의 노래는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계속해나간 시기에 나온 이 노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가 펼쳐진 오늘날의 천만대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며 더욱 무형의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혁명적이어져서 자기 자신도 정상을 향해 가고 계신데도, 수령님께서 사상적정신을 심장마다에 새겨주시는 장엄한 진군가이다. 붉은기가 시련을 박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오써 새창에 휘날리듯이 승리의 력사도 계속되어야 영원히 빛을

뿌린다. 아무리 멀고 험난하여도 중도반단언절대로 있을수 없는 것이 혁명의 길이다. 신혈들이 피로 새긴 영광의 자욱은 그 전통과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세 세대들의 깊은 투쟁에 의해서만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준엄한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고 새로운 100년대를 내다보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서있다. 이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세대의 사명감을 다스림 심장에 새겨안아야 하며 오늘날의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고 분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고 빈터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인 투쟁역사와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신군조선의 강대성을 누리며 펼친 그 영광과 승리를 영원히 빛내고 백두의 혈통을 만대대에 이어나가는 길이 있다.

지난 2년간의 대고조진군과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무적필승의 정치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을 경제과학기술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비약시킬수 있는 튼튼한 당국대를 마련하였다. 최후의 승리는 결정적으로 오늘날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의 강령으로, 숭고한 투쟁목표로 내세우신 것에 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고조의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갈 때 우리 혁명의 영광된 력사를 세기물 이어 빛나고 이 땅에서는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의 년대기가 찬란히 수놓아지게 될 것이다.

《승리의 길》노래는 령도자를 받들고 응위하며 필승을 떨치는 조선혁명의 주체가이다.

혁명의 붉은기는 령도자가 추켜든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붉은기를 세대를 이어 힘차게 휘날리며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도 정상을 향해 가고 계신데도, 수령님께서 사상적정신을 심장마다에 새겨주시는 장엄한 진군가이다. 붉은기가 시련을 박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오써 새창에 휘날리듯이 승리의 력사도 계속되어야 영원히 빛을

뿌린다. 아무리 멀고 험난하여도 중도반단언절대로 있을수 없는 것이 혁명의 길이다. 신혈들이 피로 새긴 영광의 자욱은 그 전통과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세 세대들의 깊은 투쟁에 의해서만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준엄한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고 새로운 100년대를 내다보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서있다. 이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세대의 사명감을 다스림 심장에 새겨안아야 하며 오늘날의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고 분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고 빈터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인 투쟁역사와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신군조선의 강대성을 누리며 펼친 그 영광과 승리를 영원히 빛내고 백두의 혈통을 만대대에 이어나가는 길이 있다.

수령옹이의 력사, 일심단결의 전통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총명과 맹세의 분출이다. 오늘 대고조진군과정에서 창조되는 최선의 대비약속도, 대고조의 기적과 같은 세상을 들었다놓는 사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결사판철의 정신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의 폭풍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수령님정신을 따라가며, 결사판철의 정신력으로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백전백승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어갈 것이다.

《승리의 길》노래는 자기 힘을 믿고 산악같이 밀려서 희망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의 락관주의정신을 담고 있는 투쟁의 노래이다. 승리는 그것을 믿는자에게 있고 영광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투쟁하는 인민에게 있다. 상상할수 없는 무한대한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는 승리에 대한 믿음은 곧 숭고한 이상과 그를 실현할수 있는 힘에 대한 믿음이다. 령도자에 대한 믿음, 인민의 단결된 힘에 대한 믿음, 미래를 개척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투쟁정신이 발휘되고 패물을 위하여 바치는 값없는 희생에서 참된 삶의 희열과 보람을 찾는 혁명적락관주의가 나오게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가로막아보려고 정치군사적압박과 제제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격렬한 반공화국적투쟁이 강화된 필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각오와 의지는 백배천배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원수들의 항시적인 침략위협속에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인인민이며 제국주의의 류례없는 포위압박공세속에서 무적필승의 핵억제력을 다지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강성대국으로의 대전진군을 개시한 백전백승의 인민이다. 대고조의 첫해에 이어 지난해를 위훈은 주체혁명생체제의 완성, 주체철학, 주체비료의 생산과 같은 사변들, 최첨단물과제의 승리와 같은 대정사들은 그 누가 뭐라든, 어떤 시련이 막아나서든 크며없이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오직 승리를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의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당이 우리를 이끄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신념이 가슴마다에 산악처럼 뿌리내리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었고 우리의 총진군대오에는 승리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왔다. 그 어떤 원수도 자기 령도자를 백전백승의 기적과 따르며 받을 수 없는 이면 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우리 당의 혁명방식은 공격방식이다. 우리의 총공격전은 승리와 미래를 락관하는 강자들만이 벌일수 있는 과감한 투쟁이다. 오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이미 준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번영기가 활짝 열려져있다. 우리는 《승리의 길》노래를 인민생활대고조의 승전가로 높이 부르며 드세한 총공격전을 벌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할 것이다.

《승리의 길》노래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 계속혁명의 행진가이다. 김일성민족이 가야 할 길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길이며 주체의 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이 행진길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안택의 행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엄은 우리 당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져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자에서 단뻛히 실현될수 있다. 지난해에 있는 당대표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 우리 당의 위엄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모토가 마련된것은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선군의 기치 높이 우리 조국을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웠으며 경제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도 세상이 놀라워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에게는 것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이상을 전면으로 완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적, 경제기술적대과가 다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의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대고조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갈 때 이 땅에서는 어머니수령님의 념원이 실현된 위대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인민의 무릉도원이 펼쳐져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승리의 길》노래에 담긴진 심오한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고 김일성조선의 새 승리의 100년대를 열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우리 당의 혁명방식은 공격방식이다. 우리의 총공격전은 승리와 미래를 락관하는 강자들만이 벌일수 있는 과감한 투쟁이다. 오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이미 준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번영기가 활짝 열려져있다. 우리는 《승리의 길》노래를 인민생활대고조의 승전가로 높이 부르며 드세한 총공격전을 벌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할 것이다. 《승리의 길》노래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 계속혁명의 행진가이다. 김일성민족이 가야 할 길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길이며 주체의 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이 행진길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안택의 행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엄은 우리 당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져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자에서 단뻛히 실현될수 있다. 지난해에 있는 당대표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 우리 당의 위엄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모토가 마련된것은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선군의 기치 높이 우리 조국을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웠으며 경제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도 세상이 놀라워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에게는 것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이상을 전면으로 완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적, 경제기술적대과가 다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의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대고조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갈 때 이 땅에서는 어머니수령님의 념원이 실현된 위대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인민의 무릉도원이 펼쳐져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승리의 길》노래에 담긴진 심오한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고 김일성조선의 새 승리의 100년대를 열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끝이 없으며, 위대한 당의 길은 끝이 없다.

부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의 이 웅대한 구상과 포부를 실현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중대한 사명은 없다. 혁명의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마다에 총공격전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통이다. 우리는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올해 공동사업과 기적의 호소라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오늘날의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명의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마다에 총공격전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통이다. 우리는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올해 공동사업과 기적의 호소라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에게 투쟁하고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정통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땅에 찬만년 끝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위왕찬란한 미래가 있다.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의 심장으로서 우리 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오늘도 항일의 백두전장을 누비시던 그 나날의 우리 수령님처럼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한대한 정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공격정신에 의하여 혁명의 진군속도가 비약히 높아지고 최후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최대의 마력으로 강행군에 돌입하는 박차를 가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화와 같은 총정으로 받드는 데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승리가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더욱 철옹성이 굳어져 우리의 위력을 백배해나가야 한다.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부당치는 시련을 맞받아나기 위해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목속 다 바쳐 빛나게 꽃피워나가야 한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반영한 당대표대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수호하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대표대회정신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대표대회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를 충실하게 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세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정신과 주체의 혁명정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오늘날의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명의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마다에 총공격전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통이다. 우리는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올해 공동사업과 기적의 호소라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과 인민생활 문제해결의 생명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는 결연불발명의 의지와 백전백승의 투쟁정신으로 당이 내세운 인민소비품생산과 알뜰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기적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생산물적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되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대로서 최첨단전술조건을 비롯한 대고조진군정비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며 온 나라가 약동하는 대고조기상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맞게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혁명의 철리,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대고조전진장 그 어디서나 《승리의 길》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명의 총풍기가 되어 온 나라에 대고조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올해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두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단계별 투쟁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을 정치화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비약히 높여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적사제가 될수 있는 대고조전진에서 영웅이 되고 기적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백두의 붉은기 높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혁명을 기어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서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상이고 의지이다. 폭풍이 아무리 사나아도 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모두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인류사적인 대정사로 맞이하고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승리의 100년대를 금지높이 열어나간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박정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3일 고인의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 혁명의 천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미더운 계승자들

새 세기에 들어와 지금까지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수 8만 2000여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86년이 된다. 해마다 뜻깊은 날을 맞으며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주신 력사의 로정을 따라 걸으며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계승하며 사상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지금까지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에 참가한 청소년학생들의 수는 8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 천리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 천리길을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걸으신 75돐과 85돐을 비롯하여 주요계기에는 당사자가 수천명에 달하였다. 오가산명을 비롯한 협산군명을 넘으며 담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양음이 드리웠던 조국강산에

## 우리 식의 콤팩트 컴퓨터입력기 개발

국가과학원 수학과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첨단정보기술제품인 컴퓨터입력기를 연구개발하였다. 우리 식의 콤팩트 컴퓨터입력기 《첫 의정》은 건반과 펜을 비롯한 기기의 콤팩트 입력수단들을 하나의 장치에 결합시킨 새로운 입력용 컴퓨터 주변장치로서 컴퓨터의 입력 범위를 혁신한 새 세대의 지능입력장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은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술입니다.》 새로 개발한 컴퓨터입력기에는 높은 수준의 펌웨어기술과 최첨단정밀기계 가공기술, 컴퓨터입력장치와 관련된 우리 식의 독특한 새로운 작상과 펌웨어입력방식의 설계 등 정보기술 분야의 첨단연구성과들이 총합적으로 도입되었다. 건반과 펜입력판, 펜, 편결선으로 되어있는 입력기에서는 종래의 건반입력방식을 거의 그대로 리용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펜에 의한 입력도 할수 있다. 또한 건반이나 마우스로는 할수 없거나 어려움 그림이나 수식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입력할수 있다. 정보기술발전의 현 추세에 맞는 우리 식의 독특한 컴퓨터입력기 개발함으로써 일상적인 컴퓨터입력이 보다 편리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리고 컴퓨터입력기에 따르는 프로그래밍기술의 발전으로 그 질과 성능을 계속 높여 상업용입력수단에 의한 사람과 컴퓨터사이의 대화형용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게 되었다. 국가과학원 수학과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첨단물과사상과 장군님께서 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밑줄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정보기술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컴퓨터입력기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은 당이 안겨준 배짱과 당력, 맡은 자기 땅에 불이고 높은

## 한광들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각지 립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새우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을 맡은 사업소들에 설비와 자재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산판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성의 당 및 행정일 군들은 평안남도지구의 한 사업소에 나가 눈덮인 산발들을 보면서 많은 땅의 통나무를 끌어내리면서 로동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자로 불러일으켰다. 새해에 들어와 성에서는 철도성과의 면계밭에 산지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는속속 한광들에 보내주기로

17일 현재 한광들이 보내줄 1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가장도립면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석탄전선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마음을 안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산지 통나무생산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며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맞추고있다. 평안남도립면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한광들에 더 많은 통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해 산판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높이이고있다. 특히 덕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본사기자 강명천

#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쏟아올린 수령님의 업적 영원히 기억하자

### 역사적인 리현리당총회 50돐에 즈음하여

## 아버이수령님은 오늘도 리현땅에 계신다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속에 날마다 혁신과 진보를 이끌어 주며 일어나던 격동적인 시기인 1960년대.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 주며 한 사람이 강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두가 함께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회주의적 미풍이 온 나라에 꽃피는 속에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품도에서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 인간의 최고리성까지 이끌어 가야 하고, 물론 개개인은 뒤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타고난 락후분자는 없소. 교양개조는 기간이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개조 못할 사람은 없는 법이요!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이런 열화같은 사랑의 리념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 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도록 단합시켜 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정기가 안아온 고귀한 현실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 그 일단을 감동깊이 전해 주며 력사적인 리현리당총회는 오늘도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다.

그날은 주제 50 (1961) 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이른아침 찬눈길을 헤치시며 리현리에 찾아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추나뒀은 민주건설의 수훈한 온돌방에서 초급원들과 당원들을 만나시어 당사업과 농사행편을 료 해하신데 기 초하여 며칠 후에는 력사적인 리현리당총회를 지도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균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

하며 그들과 인논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리없이 키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 방침입니다.」

이 교양 일꾼들과 당원들의 토론에서 사회주의농촌의 지향과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활짝 꽃피워 리현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러갈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신 아버이수령님 이시다.

이윽고 장례를 둘러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남성당원들도 토론하라고 이리시였다.

그러하여 한 처녀선동원이 토론하게 되었다.

「제가 선동원으로 임명되었을 때만 하여도 우리 농장원들의 생활은 판매 비하면 그리 유족하지 못하였습다. 처음에 저는 그 원인을 우리 교양의 땅이 원래 척박한데 있다고만 생각하였습다.」

이렇게 허둥을 뻔 그 토론을 아버이수령님께서서 매 우 주의 깊게 들으시였다.

한 처녀선동원의 토론을 통하여 아버이수령님께서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화목한 가정으로, 리당이 곧 가 단결된 힘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한것이 비겉에 있어 기쁘시여 이것은 우리 당 중로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만족해 하시였다.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장례를 진강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농촌리당단체들의 사업에서 이와 같이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데 대하여 자신께서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성과는 몇백만의 쌀보다 더 귀중한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이라고 이처럼 만족해하신 아버이수령님.

금정적인것으로써 부정적인것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실례를 가지고 균중을 감화시켜 대한 문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문

역사의 땅 리현리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평범한 당원들이 사람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사실을 보시고 너무 기쁘시어 오래간만에 마음놓고 편히 쉬실수 있었다고. 동무들은 리현땅에서 배울된 인간계조운동의 자기마한 싸움을 귀중히 여기시고 전국에 일반화되었던 수령님의 높은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며 온 리현땅을 천리마선진자들의 데오로 무성하게 바꾸어 주신 것에하는 장군님, 그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리현리는 날로 일하고도 좋고 살고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으로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은 필멸불멸에 이르는 진리를 새겨 주며 력사의 땅 리현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철학의 력사를 깊이 접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랑순

### 번영의 한길 따라

과 함께 농사일을 기계화하고 논밭에 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옥이 이량처럼 어려웠는 리현리를 찾으십시오! 해마다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다.

주제 51 (1962) 년 11월 어느날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었을 때 오 리현리의 총합적기적회화의 넓은 길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큰길에 있는 집에 들리시어 서는 농촌문화주택을 농장원들이 쓰고사는데 편리하게 잘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이수령님. 농장원들의 살림을 보다 윤쾌하게 해주시려고 집마다 과일나무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그 방도도 하나하나 사의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불멸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찬란한 현실, 수령님의 리상실현을 위하여 충정을 다 바치시는 것에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워 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궁지높은 속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매시 기, 매 단계마다 농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왔읍니다.」

력사의 땅 리현리사람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 알곡생산과 담배생산으로 힘있게 고구무수하는 숭고한 사회감정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동무들이 위대한 수령님 과 당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는 계속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끊임 없이 높이며 리현땅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러나가기 위하여는 우리의 농민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잘하는것

번영의 한길 따라

나리안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누구나 붉은 선동원이 되어 아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 농촌건설구상을 앞장서 관철하고 있는 리현리의 청년작업반원들께 사랑의 편지로 보내 주시고 사적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들도 보내 주신 아버이수령님.

그 현명한 령도, 다심한 사랑속에 오늘 리현리는 천지개벽을 노래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용하는 집에는 손님이 잏다는 말이 있듯이 번영하는 이 교양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오늘 리현리는 날마다 흥성인다.

인간개조의 본보기단위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력사를 감동깊이 돌이켜보며 땅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 고 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 가슴깊이 새겨 간다.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 잊지 못할 그날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 작업반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일이 잘되고 못하고 하는 문제는 결국 균중속에서 직접 사업을 조직하는 단원인 작업반에서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에 달려있다.

리현리당총회를 지도하시면서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작업반을 강화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작업반장은 매 사람들에겐 분공을 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정책관행을 위해 뛰게 하는 방법법을 견지하여야 하며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작업반에는 재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으며 집을 잘 지는 사람도 있고 모를 잘 내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작업반장은 반원들의 이와 같은 소질과 능력에 알맞게 작업배치를 해야 하며 분공을 준 다음에는 평가는 어떻게 판하며 하는가, 어떻게 내는가에 대하여 세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것이다. ...

매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에 맞게 작업조직을 하고 치밀하게 도와주며 대한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작업반강화발전에서 나서는 참으로 고귀한 지침이었다.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균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

## 언제나 붉은 선동원시절처럼

나를 하면 나날에 있는 가지가지의 일을 죄다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사실 그때 농장원들속에는 사상적우양이 높고 부지런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낮은 수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더. 그런때 막상 그런 사람들을 교양하자고 하니 그들 자신이 선동원이 찾아오기를 달가와하지 않는것이 문제였다.

어떤 때에는 화가에 어성을 높여 책망해주고있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청산리에서 하신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다시한번 되새겼었다.

그러는 과정에 나는 천리마기수들의 모범을 본받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웠다.

말나무가 없이는 집에는 관리위원회에 달려오 말나무를 한개 농장을 책임진 관리위원장으로 키우지 못하였거니와 귀을걸을 영광과 행복의 정경에 세워주었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리현땅에는 수많은 붉은 선동원들이 자라나 영광의 땅을 천지개벽하

리현리당총회, **장강수면리 크고작은 길과 길이** 언 길을 헤쳐가시며 한평생 인민과 정을 나누시고 교락을 함께 가진 아버이수령님께서가 우선 사랑의 화환, 조선혁명 의 천지대본인 일심단결력사의 감동깊은 한 결미이다.

나는 오늘도 불멸은 장가에서 사랑의 기쁨사건을 보며 뜨겁게 눈물흘린다.

정경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혁명생애의 하루하루를 인민을 위한 사랑, 헌신적봉투의 하루하루로 그처럼 광휘롭게 수놓은 절세의 애국자는 상상도 없다.

그리고 불라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과 영광의 정경에 섰던 그날의 열정, 충성의 세계에 살리라.

이것이 어찌 하나니만의 심장 맹세인가.

아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천만 년 잊지 못하는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 모두의 일심단결이 아니라, 노력영웅 리 신 자

### 관리위원장의 현장침투

관리위원장이 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균중속에 들어가 함께 일하던 균중의 정서도 알 수 있고 균중과 호흡을 같이하게 되어 균중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는

### 하나의 훌륭한 교양방법

리현리당총회에 참가하시어 일꾼들과 당원들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 는 아직 적지 않은 부문에서 로력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주의본래의 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는 문제를 발견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는 사회주의본래의 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 고 박성순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인 박성순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3일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중앙기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셨던 이 충실한 혁명전사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조객들은 조의식장인 성리묘를 찾았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를 앙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령구열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원이 령구열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고 박성순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 강성대국에로 이어진 혁명의 천리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이즈니 66년 세월이 흘렀다.

력사에 기록없는 위대한 혁명,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쓰며 걸은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신념이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편견 없는 영웅사사를 창조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세게 격동시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투쟁을 해쳐오신 전설적영웅, 희세의 위인이시였 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파갈듯 뚫고 헤치시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만년미래, 강성번영의 찬란한 앞길을 담보하신 바로 여기에 절세의 애국자 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다.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정일생애의 높은 뜻을 받드시 조침을 창립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조국해방의 큰뜻을 키워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버님께서 일제정강을 무너뜨리신 데서 비롯되었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서 주제 14

(1925) 년 1월 22일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그 길은 정녕 보통사람들이 흔히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가야 할 천리길 5백리 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준한 령이었고 강계에서부터 후창(당시) 이라는 길방영의 조랑밭에서 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 려다다.

어른들도 주저하는 그런 위험한 천리길에 그것도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단신으로 나서시였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강인담대한 의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리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조국땅의 백승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계시어 이 땅에 더욱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일제기 광복의 천리길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웅사사를 후손대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개인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야 다시 돌아오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다하신 그날의 맹세는 혁명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사명감의 의지, 강인담대한 배양으로 빼앗긴 조국을 되

찾은 이 땅에 기어 부당한 인민의 락권을 세우리라는 애국애족의 굳건한 다짐이었다.

조국과 인민앞에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켜 항일의 혈전투쟁, 눈보라천리길을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수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새 조국을 일떠세우신가 거머잡아 절한 반미대전의 포위를 헤치고 나가도, 전후복구건설에 이어 부강건설의 천리마를 불러오시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시며 매에 아버이수령님께서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처럼 위대한 신념을 애국의 숭고한 뜻으로 불태우시며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조국땅의 백승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계시어 이 땅에 더욱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일제기 광복의 천리길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웅사사를 후손대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개인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야 다시 돌아오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다하신 그날의 맹세는 혁명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사명감의 의지, 강인담대한 배양으로 빼앗긴 조국을 되

##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

팍산군 관산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된것이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선군혁명 령도의 나날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일화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 해나갈로 하고있다.

그리고 일꾼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도와 헤쳐나갈, 연구발표사업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도 사업을 심신하게 벌여나갈로 하고 있다.

얼마전 새해농사치రో 들끓는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꾼은 작업의 실참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당보에 실린 한 인민군로부터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시사찰소식을 독보하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군으로 키우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자료들 가지고 감명깊게 이야기 해주었다.

그는 해설을 마치고 인민생활 문제해결의 생명성을 지켜신 자기를 안고 뜻깊은 율해에 알곡출산으로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날의 해설모임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조국과 인민군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고 박성순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이날의 해설모임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조국과 인민군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고 박성순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이날의 해설모임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조국과 인민군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고 박성순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찾은 이 땅에 기어 부당한 인민의 락권을 세우리라는 애국애족의 굳건한 다짐이었다.

조국과 인민앞에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켜 항일의 혈전투쟁, 눈보라천리길을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수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새 조국을 일떠세우신가 거머잡아 절한 반미대전의 포위를 헤치고 나가도, 전후복구건설에 이어 부강건설의 천리마를 불러오시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시며 매에 아버이수령님께서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처럼 위대한 신념을 애국의 숭고한 뜻으로 불태우시며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조국땅의 백승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계시어 이 땅에 더욱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일제기 광복의 천리길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웅사사를 후손대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개인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야 다시 돌아오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다하신 그날의 맹세는 혁명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사명감의 의지, 강인담대한 배양으로 빼앗긴 조국을 되

#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로!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높이자 총공격전으로 부르는 드세찬 정치사상공세

##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인민생활상대대고조로 부르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당위원회에서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리없이 이끌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울며 총공격전의 추풍진성을 경공업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공동사업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면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경공업을 우선시하며 여기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조도 체득해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

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조직들에서는 강연, 해설담화, 문답식학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공동사설학습을 실시하고 진행해나가고있다. 또한 직관전, 예술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선전선동수단과 령표를 총동원하여 올해에 경공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대대고조전선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설학습과정에서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올해의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며 그 실천을 위한 뚜렷한 방법론을 찾아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큰 뜻을 들어 일떠세운 경공업공정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고 현대화를 위한 선진적 방법을 찾아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큰 뜻을 들어 일떠세운 경공업공정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고 현대화를 위한 선진적 방법을 찾아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큰 뜻을 들어 일떠세운 경공업공정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고 현대화를 위한 선진적 방법을 찾아내주고있다.

그리고 피마주를 비롯한 기림작물심기와 그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올해에 인민생활상대대고조전선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가 일고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것을 자각한 시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의 대렬을 늘리고 전개력이 강한 선원들로 꾸리는 한편 모든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생산을 자기 끝까지 책임지고 무조건 수행한다는 각오를 들고 당정책을 현실로 풀어나가는 완강한 실천가,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이 심화되고있는 속에 시의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방을 지켰다. 중공화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전투조직도 구제적으로 짜고있고있다. 이와 함께 구역당조직들에서 그 원로보장대책을 적극 따르세우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인력기조 조성과 종이원료림, 수수나무림 조성

## 제품의 질제고에 큰 힘을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지금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당의 인민생활전략을 빛나게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학습하여 한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하루빨리 기술기능수준을 한급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제품의 질을 찾더라도 놓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자신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 대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특히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하여 누구나 이 사업에 한사합성이 펼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신봉한 영예감을 가슴깊이 간고하고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 선교편직 공장에서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올해공공사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업을 위한 준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정초부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줄것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 당조직에서는 확신시켜 사명을 힘있게 받들어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과업실행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있다.

특히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려올리고 있다.

##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자수작업반과 직조, 제단, 가공작업반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자수작업반과 직조작업반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질 좋고 뽀시 있는 뜨개내외와 새로운 장식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으며 제단작업반의 종업원들은 제단실수를 한계дан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글라글에 애쓰고있다.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1가공작업반과 2가공작업반의 기능공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원바람을 일으키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염색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술을 부단히 혁신하여 염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정기술부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특색있는 장식부품들을 착안하여 새로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뿐만 아니라 편직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정점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연구과제 수행에 총집중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고있다.

방직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입을 문제해결에서 의의있는 데드론인전천의 질을 개선하고 그 품종을 확대하고있다.

한편 분원에서는 당의 은성속에 개진된 경공업공정장에 큰 은을 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과학기술문제들도 풀어나가고있다. 연구사들은 정양일

가공공공정의 호효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평양방직공장에서 새로운 유연한대직조를 받아들이는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또한 연구사들은 장식식리공정, 해산발공정, 강제기초식공공정, 최첨단사공정 등 여러 지방공업공정들에 새가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도입하는것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해안은하리복공정 일군들과 노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같은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대대고조전선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가 공동사설의 전투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해안은하리복공정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지난해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철면 무적 수행한 이 공장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올해에도 인민생활상대대고조전선에서 앞장서나갈 심심다조인이 생산력확장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가면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현 생산전진의 2배나 되고 내부구조와 생산혁신이 새 세대의 요구와 견실성에 걸맞게 설계된 4층짜리 덩치 큰 생산건물이 자기의 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최근년에는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으로 영웅적위훈 창조

특 해운성 단천항건설을 격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요구라면 단천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떠라 변모되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천항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을 이 땅에 활짝 꽃피워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 관란하는 파도위에 내려치는 용맹

두해전 7월의 어느날, 단천 앞바다가 청진과 함흥, 남포 등 곳곳에서 배낭을 진 사람들이 대렬을 맞추어 모여들었다. 이들이 바로 어머니수령님의 후원을 받들어 단천항건설을 맡아나선 투쟁성정 단천항건설 돌격대원들이었다.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세우는 단천항건설에 참가한다는 영예와 긍지에 넘쳐있는 돌격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첫날부터 대대, 중대별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해상로 개척, 막돌채취, 방파제보수, 부채생산 등 모든 건설전투가 뿔뚝이 솟아나고 있었다. 단천항의 막바지를 메우다싶이 하며 들어

##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법으로

방파제건설전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장전의 투쟁이었다. 방파제가 점점 멀러 멀어 나가면서 공사조건은 종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갑자기 조밀해 놓았던 부채들과 대형설비들이 순식간에 휘두러지고 회성을 순조롭게 하는 불의의 정황들이 자주 조성되곤 하였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광란하는 파도를 거그러내며 방파제를 정부하기 위한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방파제의 밑단기초쌓기전투를 벌릴 때였다. 기존건설공법에 달 미달된 10미터 길러도 방파제건설을 끝낼수 없었다.

“기어이 당창건 65돐전으로 방파제건설을 끝내야 한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이면 권리를 다하고 누구라 할것없이 방파제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건설공법을 창안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날과 날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남포해운성계 연구소 연구사 리영린동무가 볼로초건설공법을 창안하여 내 놓았다. 바다의 바닥을 파지 않고 부채를 쌓을수 있게 창안된 이 공법은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는 데담하면서도 기발한 착상이었다.



직관선동의 실효를 높여

안악군 신촌리당위원회 일군들이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들의 사업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기동성있는 수목발간이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농장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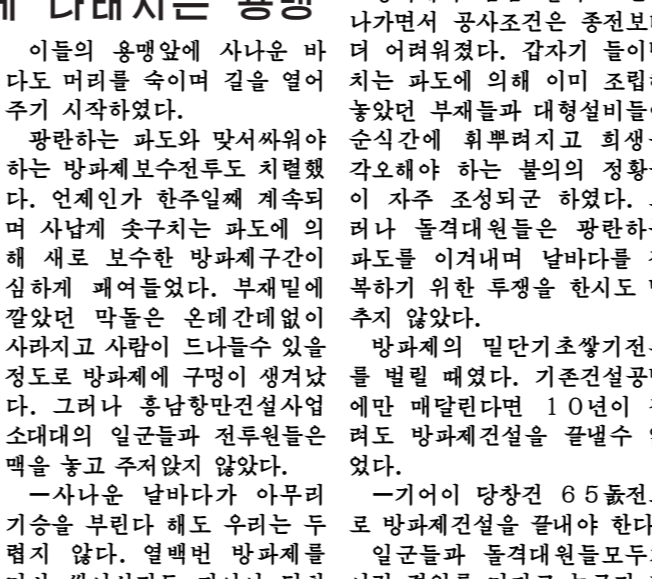


공공사설을 높이 받들고 주공방을 실현

그리하여 그날 농장에서는 거름운반실적을 2배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고정속보관, 이동속보관들을 정황에 맞게 신속히 전개하여 농고 공정적인 새 소식들을 제때에 소개해줌으로써 새해 전투에 펼쳐나선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고있다.

로동농선원 럽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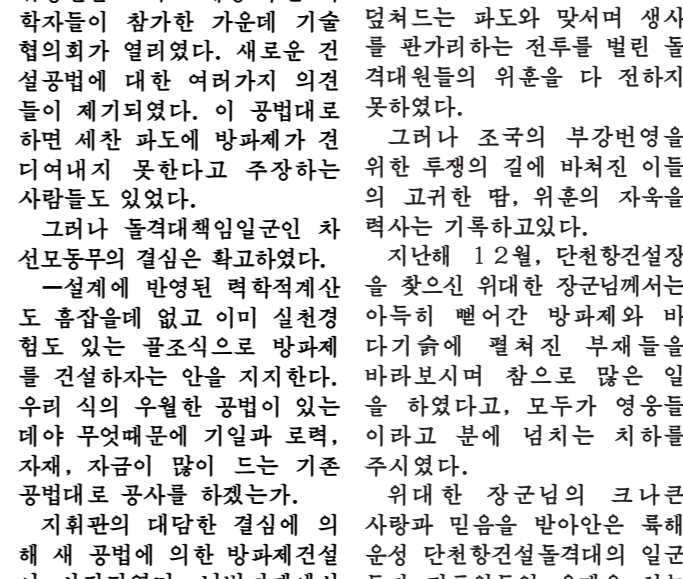
관란하는 파도위에 내려치는 용맹

이들의 용맹애에 사나운 바다도 머리를 숙이며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였다.

광란하는 파도와 맞서 싸우려는 방파제보수전투도 치열했다. 연례인가 한주일에 계속되며 사납게 솟아치는 파도에 헤쳐보수한 방파제 구간이 심하게 패어졌다. 부채들이 잘랐던 막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낼수 있을 정도로 방파제가 구멍이 생겨났다. 그러나 흥남항만건설사업소대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지 않았다.

“사나운 날바다가 아무런 기술을 부린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열범한 방파제를 다시 쌓아서라도 기어이 단천항건설을 우리 힘으로 해내고 앞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이날 보수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대대의 전투원들이 처진 심장의 꿍꿍이였다. 이들은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안고 파괴된 구간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방파제에 대한 보수전투는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졌다. 여러 단위에 달리는 돌격



관란하는 파도위에 내려치는 용맹

관란하는 파도위에 내려치는 용맹

대원들이 해상에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지상에서도 격전을 벌리게 하는 각종 부채생산전투가 벌어졌다. 혼합기들의 우렁찬 동음곡이 수십개의 대형부채와 각종 부채들이 바다기둥을 짚으며 펌으로 연속 생산되었다. 이 파도에 파도의 세기를 최대로 분산시켜 방파제를 보호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채생산방법도 창안되었다.

이렇게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이며 슬기와 용맹을 떨쳐내 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전하라면 끝이 없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방파제보수전투는 빠른 기일안에 끝나고 편이 날바다를 막는 새로운 방파제건설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가파로운 산밭을 오르내리며 편이든 대밭도 공사에 필요한 물과 해를 한 흥남항대의 전투원들과 외전 산중에서 등대전투를 벌리는 전투원들 그리고 수시로 달려드는 파도와 맞서며 생산을 판가리하는 전투를 벌린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다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바쳐진 이들의 고귀한 땀, 위훈의 자욱을 력하는 기록하고있다.

지난해 12월, 단천항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득히 편이간 방파제와 바다기둥에 펼쳐진 부채들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투쟁성정 단천항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용맹은 하늘에 닿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양으로 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고 조선은 결심한 단천항을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던 돌격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가까운 앞날에 단천항에서 기어이 첫배동소리를 높이 울릴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새해의 전군걸음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 조국에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리

### 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 공정기사 최호성동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 공정기사 최호성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적성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 공정기사라고 부른다.

우리 공정기사, 이것은 그 어떤 명예칭호도 표창도 아니다. 하지만 이 부름속에는 높은 과학기술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최호성동무에 대한 집단의 믿음과 존경이 뜨겁게 어우러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어야 합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을 졸업한 최호성동무가 열간압연직장의 기술관리공정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이었다. 어느날 가열로를 세우고 로안에 뛰어들어 로동자들과 함께 산화된 쇠집질을 걸어낸 다음 8시간만에 다시 로를 가동시킨 그는 밤같이 가열로 결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다.

《장제를 가열할 때 쇠집질이 생기는데는 불가피한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량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달라붙었지만 아직까지 결을 보지 못했소.》

장제를 가열할 때 생기는 쇠집질때문에 3일이 멀다 하게 가열로를 세우고 온 직장이 달

라붙어 전투를 벌려야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하는 말이였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대학을 졸업한 기사, 가열로의 기술관리를 책임진 기술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그날 밤 깊은 자책속에 가열로결을 떠나지 못한 최호성동무는 자기의 수첩에 이런 글을 씌웠다.

《기술자의 당에서 공부시키 주고 키워준 은덕에 기술로써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내 한성토록 나라의 압연강재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 조국에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리!》

그날 한성의 좌우명과 같은 의지와 맹세를 심장깊이 다지고자한 그는 분발하여 일하였다.

어느날 저녁밖을 싸들고 현장에 나온 안해인 리순열동무가 며칠째 가열로결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려붙었다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물었다. 그때 최호성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못하면 물러설 수 있어도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으며 백날, 천날을 바쳐서라도 꼭 해내야 하오. 그것은 내가 바로 이 가열로의 기술관리를 책임진 공정기사이기때문입니다.》

기술자로서의 이렇듯 높은 자각과 책임감, 지칠 줄 모르는 의지와 열정을 안고 그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서 로안에서의 가열온도분포를 변화시키고 그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던 가열방식을 대담하게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착상에 직장일군들은 물론 기술자들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직장에서는 시험생산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부분시험에서 성공하자 직장에서는 신심에 넘쳐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험생산에서 실패하였다. 그러자 일부 일군들이 생산의 수혜를 보면서 머리를 저었다. 그때 초급당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다. 파정에 애로와 난관이 있긴 마련이다. 그앞에서 물러서면 침체와 답보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기술혁신이냐 곧 생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급당일군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최호성동무는 밤을 꼬박 밝히며 가열로안에서의 열량분배와 온도분포를 다시 설정하였다. 며칠후 련합기업소 열간들과 기술자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시험생산은 완전히 성공하도록 연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된 열동력 1직장과 열동력 2직장의 대형설비들을 없애 버릴 대담한 결심에 새로 온 장차계발에 달려붙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하였다. 그러나 일단 결심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전투장을 떠날 줄 모르

는 그는 설계로부터 필요한 자체를 자제로 해결하거나며 전투를 벌렸다. 실패가 거듭되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인불발의 의지력으로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을 탐독하며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 끝내 새로운 장치에 의한 연료압송공정을 확립하고야말았다.

시운전에서 성공한 날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두개 직장의 설비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가열로시동시간을 종전보다 12분의 1로 줄이고 수만의 연료를 절약할뿐 아니라 로수명을 12배로 늘여 수십만의 압연강재를 더 생산할 수 있게 한 그의 연구성과를 놓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동무야말로 누구나 욕심을 낼만 한 전파라자 기술자요.》

그때로부터 열마후 련합기업소에서는 60여년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에 적극 이바지한 그를 일군으로 소환하려고 하였다. 아쉽게도 직장에서도 그의 등을 떠밀었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저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명예나 이익이 되기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저는 한성토록 가열로와 함께 살며 나라의 압연강재생산에 이바지하는 커지지 않는 불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불같은 저항과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최호성동무는 그후 또다시 연료를 20% 줄여 절약하면서도 뿔뿔을 쓰지 않는 유류장치를 새롭게 창안하여 생산에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최호성동무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흥분속에 밤잠도 못가며 열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때 김철의 열간압연직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압연강재생산의 주제 화실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직 말씀을 자자구 심장속에 새겨안은 그는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압연강재생산의 주제 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에 달려붙었다. 어느 한 연료를 쓰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열로에서 살다살이 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10여건의 새로운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연구기간은 끝내 새로운 기술을 가열로에 받아들여 우리 식의 압연강재생산의 확고한 기술적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12월 또다시 김철을 찾아온 신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압연강재생산의 주제 화를 실현한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최호성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 큰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신군시대의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그날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주며 오오늘은 일

## 신천군량정 사업소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사회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소.》

신천군량정사업소는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데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단원이다.

몇몇친 이 사업소 초급당일군은 사업하게 된 리용공동무는 단위실태를 로해하던 과정에서 부끄러운 인민군대원호기공장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사업소에서 진행해온 원호사업내용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때부터 이 사업소 원호들은 원호사업을 성심성의로 진행해오고있었던 것이다.

리용공동무는 앞으로도 종업원들속에서 원호사업에 높이 발휘해나가기로 하리라 결심하였다.

사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대한 원호사업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고 물질방면으로 원호하였다.

초급당일원에서는 원호기공을 높이 발휘하고는 종업원들을 3대혁명붉은기공장을 위한 영예등장에 등록하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원호사업에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모두가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더 잘해나갈 목적에서 축산기구를 무려놓고 원호사업을 더욱 크게 내밀었다.

조국보위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초급당일군부터 아들딸 세남매를 인민군대에 입대시킨대 이어 지배인, 기사장도 자기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 것을 머슴하는 궁지로, 자랑으로 여기었다.

이들만이 아닌 많은 종업원들도 자기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 것을 머슴하는 궁지로, 자랑으로 여기었다.

사업소주내의 숙보판에 《초소의 소식》란을 만들어 놓고 종업원들이 군무생활과 전투정치현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사실들을 부대에서 보내온 편지나 사진과 함께 게재시키고있는 것만 보아도 이 사업소 원호사업의 열의를 엿볼 수 있다.

초소의 소식은 종업원들이 자기의 아들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내세운 궁지와 자랑을 안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더 열성적으로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기간 은근 은근을 다하여 인민군대원호를 적극 원호하는 신천군량정사업소에 감사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오늘도 이 사업소 원호사업에 높이 발휘해나가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원호군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

## 과학기술로 농업전선을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 과학기술로 농업전선을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향해북도안의 협동농장들이 들끓는다. 울헤공동사설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울헤 알곡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 열의에 넘쳐 협동농장마다에서 혁신적실업들을 이룩해나가는 농장원들속에는 류달리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농장원들과 함께 거머들 울헤알곡과 과학기술을 접수하고 울헤알곡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열의와 열정을 쏟고 있는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계승상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협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학위자질을 과학연구사업에 접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난 시기 자랑찬 과학기술성적으로 알곡생산에 적극 이바지한 교원, 연구사들은 울헤에도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리원시와 름산군, 곡산군, 서흥군을 비롯한 수많은 교원 집단만은 지난해 말 6000여명에 달하는 중농공을 만들어 도안의 농업전선을 일떠세우는 후보교사, 교수, 박사, 오경초, 박사 조경동무 등을 비롯한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서 있다.

지난해말부터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적 준비를 더욱 세게 해나가는 열의와 열정을 안고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다. 제갈향, 김승현, 조순열, 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시, 군들에 교원, 연구사들을 내보내어 해당 지역의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현실요를 구체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협동농장도양관리기체 《미복-1》호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뿐만 아니라 토양분석을 비롯하여 필요한 분석과 실험을 제때에 정확히 할 수 있게 종합분석 실험실과 식물학실험실을 새로 현대적으로 꾸리었다.

미성농장강과를 비롯한 교원 집단은 지난해 말 6000여명에 달하는 중농공을 만들어 도안의 농업전선을 일떠세우는 후보교사, 교수, 박사, 오경초, 박사 조경동무 등을 비롯한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서 있다.

지난해말부터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적 준비를 더욱 세게 해나가는 열의와 열정을 안고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다. 제갈향, 김승현, 조순열, 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시, 군들에 교원, 연구사들을 내보내어 해당 지역의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현실요를 구체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협동농장도양관리기체 《미복-1》호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뿐만 아니라 토양분석을 비롯하여 필요한 분석과 실험을 제때에 정확히 할 수 있게 종합분석 실험실과 식물학실험실을 새로 현대적으로 꾸리었다.

미성농장강과를 비롯한 교원 집단은 지난해 말 6000여명에 달하는 중농공을 만들어 도안의 농업전선을 일떠세우는 후보교사, 교수, 박사, 오경초, 박사 조경동무 등을 비롯한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서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 에쥬르오라스프전기통신회사 리사장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에쥬르오라스프전기통신회사 리사장 나그리 싸위리사에게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은 세계자유독립운동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진적사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감사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그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오가산에서 수백년, 1000여년 자란 진귀한 천연기념물들과 잔나무, 잔나무, 가문비나무, 피나무, 신갈나무를 비롯한 바늘잎, 넓은잎나무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은 장문을 이룬 현시립의 풍치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독자들은 화첩을 통하여 형성력사가 오래고 희귀한 동식물들로 가득찬 오가산자연보호구의 풍만한 대자연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산주목을 보여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가 화첩에 수록되어 있다.

화첩의 첫 부분은 주제 97(2008)년 7월 1일 오가산을 찾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오가산자연보호구가 절망되었습니까!」라는 명제와 함께 모셔져 있다.

사진 「오가산명령의 잔나무를 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오가산주목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가 화첩에 수록되어 있다.

화첩의 첫 부분은 주제 97(2008)년 7월 1일 오가산을 찾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오가산자연보호구가 절망되었습니까!」라는 명제와 함께 모셔져 있다.

사진 「오가산명령의 잔나무를 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오가산주목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가 화첩에 수록되어 있다.



## 60여년만에 강한 추위 지속

울거울의 강한 추위가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의 사이에 낮최저기온은 -4, -9℃, 아침최저기온은 -15, -6℃로서 각각 평년보다 3, 2℃ 낮았다. 이 기간 낮최저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평년 이하로 지속되었다. 특히 1월 16일 최저기온은 동해안북부지방을 제외하고 평양지방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5-10℃ 낮았다.

우리 나라에서 거의 한달동안 낮최저기온이 0℃ 이하에서 지속된 것은 주제 34(1945)년 이래 처음이다. 2001년에도 심한 추위가 있었으나 그 기간은 10일정도였고 지난해에는 22일간이었다. 추위가 계속되고있는 원인은 최근 약화되는 북극진동 등의 최근 한대폭풍기압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북극진동은 북극과 중위도지방사이의 대기압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현상이다.

대기압이 평년보다 북극지방에서 높아지고 중위도지방에서 낮아지면 북극진동이 약화된다. 이때 북극지방의 찬공기는 중위도지방으로 쉽게 내려오게 되므로 심한 추위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북극진동이 약화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추위현상은 1월말까지도 예상된다.

비행장에서 리성한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사무장과 리경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참사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참가차 우리 나라 선수단 출발

비행장에서 김장산 체육부 부장, 체육부문 일군들이 선수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

### 김일성종합대학 계승상농업대학 교원, 연구사들

협동농장들에 보내준대 이어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농공을 세워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집을 작성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보내주었다.

또한 대학에서는 수시차에 걸쳐 보여주기사업과 기술성장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모든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홍보선비로써 생산방법을 비롯하여 선진연구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비롯없이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작전계획에 비추어 교원, 연구사들이 협력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강남이종자피복에 필요한 물질을, 비중자치리방법 도입 등으로 드러낸 나날을 보내면서도 낮에는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과학기술성장을 하고 밤에는 배태로 지칠 줄 모르는 사색의 나날을 펼쳐가며 과학농사의 열풍을 더욱 뜨겁게 일으키는 등 농업전선에서

##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 속천 농업대학에서

속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는 한 울헤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혁명적인 과학연구기공을 세우고 그들이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많이 내놓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의 유희 농업발전에 한몫 단단히 하는 연구성과를 찾아내어 현실에서 생활력이 높게 발휘될 때까지 근거 있게 내밀고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연구실 실장 리군수동무는 60살이 지난 나이에 청춘의 폐기와 정열에 넘쳐 과학탐구의 길을 열었다. 비행장에서 리성한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사무장과 리경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참사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참가차 우리 나라 선수단 출발

비행장에서 김장산 체육부 부장, 체육부문 일군들이 선수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령 농업전문학교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의 협심연구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강령 농업전문학교에서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달성하고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현실성있게 실시되는 연구성과를 연구자들로 옮겨 선정하게 하는 데 신중을 기울였다.

학교의 일군들은 교원들이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 현실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과학토론회와 학술토론회를 참신하게 조직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과학연구를 정확한 주제로 가지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게 하고있다.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사업에 중점을 두고있다. 그리고 과학연구조건을 확충하여 버리면서 학생들도 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배운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미망들을 농작물의 성장에 좋은 비료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쳐 완성함으로써 알곡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수확을 높이고 두둑농사에서 결매를 적극 받아들여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 간적지 면에서 수확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에서 거둔 성과는 강령의 높은 학교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수의축산학강좌의 교원들도 지난해부터 점진적 사양관리에서 질실의 체계되는 문제를 연구종자로 삼고 꾸준히 연구실적을 진행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고있다. 이들은 생개체적사양과 폐지음병 치료, 부병의 방지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있다.

정운호강과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실습조건을 비롯하여 학교자체의 힘으로 훌륭하게 꾸린 실험실과 실험장비를 리용하여 그 우월성이 현존된 과학연구성과를 얻어낸 협동농장들에 성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활기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공로 혁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

세계에 즈음하여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평화로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력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반동세력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지역국가들 사이의 리해관계가 얽혀져있고 정세가 복잡한 지역으로 되어있다. 특히 냉전시기가 이 지역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반자주제력사의 얽혀한 대결장으로 되었다. 냉전종식후에도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정세가 긴장하며 위험한 전장발전지로 되고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곳은 여러 지역과 대양들과 련결되어있다. 이젠 미국대통령안보담당 보좌관 브레킨스키는 미국이 세계적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유럽이 부딪치지 않도록 동유럽지역과 미쓰칸의 군사력이 출동하였던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 그리고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며 말했다.

동북아시아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중국과 로씨야, 일본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있다. 아시아동북부에 서 유라시아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남아시아, 조선반도이다. 이러한 전략적위치로 하여 역사적으로 서방 열강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맹렬히 벌였다.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세력권을 확보하는것이 아시아,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있기때문이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야망은 오늘에 와서 더욱 불어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지난 시기 눈독을 들여오던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확보한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데로 대외정책의 총적지향성을 돌리고있다. 그것은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것으로 연결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팽진조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전략, 중점전략에 맞게 무력을 전방적으로 재편성배치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미국이 팽진조도를 일부 지역에서는 무력추진책지를 취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더욱 증강하며 이 지역에서 확고한 군사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그와 판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동북아시아평화보장의 관건적고리이다.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정세가 가장 긴장하고 전쟁위험이 제일 큰 지역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의 위험성이 커지면 동북아시아정세가 긴장해지고 반면에 이곳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갈수록 그만큼 동북아시아지역이 안정되게 된다.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의 대조선전략정책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그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취하는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사기지와 무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은 이곳에서 팽진 조도를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 투쟁이며 전쟁발발, 평화후퇴등이다.

# 체스교, 민주평고에서 새해 공동시설 연구보급

다보, 군보, 청년보 공동시설에 대한 로론회와 독보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기주제 체스교준비위원회, 민주평고청년주제사상연구소에서 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주제 체스교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아로슬라브 카프카는 로론회에서 2010년에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의 새해공동시설은 올해에 다시한번 성공적으로 막사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을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지난해 안락의 분별주의세력의 온갖 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공동시설은 북남사이의 대결장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전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공동시설에 제시된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민주평고청년주제사상연구소 위원장 은첸바 양가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해에 있는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을 영연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위위를 높이며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근간방도를 마련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지난해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하의 특출한 령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성숙자를 부강조국건설원인을 뜻깊게 위한 전진공세, 전진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투쟁의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민사적대장사로 맞이할것이다.

유럽중시정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으로 방향전환한 미국은 《태평양양국론》을 들고나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간섭의 손길을 더욱 깊숙히 뻗어내고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간섭정책의 강화는 아시아가 차지하고있는 전략적위치와 세계경제발전에서 노는 이 지역의 역할과 중요하에 관련된다.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을뿐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21세기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있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광활한 원료원천지, 상품시장으로 되고있는 아시아를 넘겨다보며 군침을 흘리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를 놓치는것은 세계중심에서 한걸음 물러서는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에서 눈을 돌리고 이 지역에 대한 간섭과 지배정책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등을 잇부서버려야 한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성숙자를 부강조국건설원인을 뜻깊게 위한 전진공세, 전진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투쟁의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민사적대장사로 맞이할것이다.

# 세계보건기구 우리 나라 의사담당구역제를 높이 평가

14일 미국의 VOA방송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 한 보고서에서 최근년간 조선인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기초의료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그 요인의 하나로 의사담당구역제를 들었다.

보고서는 《조선의 포괄적이고 활발한 의사담당구역제는 통합적인 질병감시의 강력한

본사기자

12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257명 사망하고 50여명이 행방불명되며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떠내려갔다. 피해지역들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긴급구급조치가 이뤄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반제투쟁에서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인민

여러 나라 청년학생대표들이 강조

제17차 세계청년학생총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청년학생대표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는 선군정치에 찬양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네팔청년학생대표 라자브 파하리는 선군정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김정일각하께서 펼치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등을 과감히 거부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

우리가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가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

# 중동평화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에집트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가 19일 제2차 아랍경제, 개발 및 사회수뇌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중동평화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문제가 지역국체들의 필

중동지역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문제가 지역국체들의 필

# 총기류 범 죄

미국에서 18일 총기류범 죄 사건이 또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구 총질을 하여 3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자 연

오스트랄리아의 쿨롱랜드주에서 최근 큰물파도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3일 브리스베인에서 강물이 넘어나면서 발생한 큰물도 사망자가 나고 2만 6 000제이상의 살림집과 5 000여개의 기업체

미로동성은 13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일까지의 지난 한 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44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교 해

미로동성은 13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일까지의 지난 한 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44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일본 <자위대> 노린 수 손

일본 <자위대>가 19일 아이찌현에 있는 고마키지에서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그 무은 《세외일본인수송》훈련을 벌려놓았다.

370명의 병력과 8대의 군용기, 수송선 1척이 동원된 가운데 감행된 훈련에서는 재외일본인들을 긴급수송하는 것을 가당한 연습이 벌어졌다.

# 조선반도 재침을 훈련 감행

알려진바와 같이 《세외일본인수송》이란 해외침략전쟁에 뛰어들것을 노린 《자위대》의 합성과 비행기의 해외파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조선반도재침태세를 완비해나가고있는 이러한 책동은 위험한 단계에 이른 일본본토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적으로 해적행위 성행

세계적으로 해적행위가 성행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8일 국제해양부부가 발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대양과 바다에서 감행된 해적행위가 총 445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보다 10% 증대된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이스라엘의 봉쇄와 정착촌확장책 동지

유엔주재 팔레스타인상임대표가 19일 중동평화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확장책등을 단죄하였다.

그는 유대교고교의자들이 자지대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군사적폭압행위와 봉쇄책동에 계속 매여달라고 규탄하였다.

이스라엘의 봉쇄를 끝장내고 자지대에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지금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경제형편과 생활전망에 비판

오스트랄리아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9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현재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6.4점 감소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실업자 증대

미로동성은 13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일까지의 지난 한 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44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물가 인상

영국에서 물가가 계속 뛰어나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8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해 12월에 물가가 3.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식료품과 연료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학기술혁신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토의한 이번 언단은 방안과학기술 교류 및 협조를 심화시키고 양국의 호혜와 윈-윈을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전반적경제력을 높이는 데 의의는 마땅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음악예술은 중국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이다. 올해 음악예술에 즈음하여 홍콩특별행정구주제 중앙인민정부 령관공실이 홍콩대당에서 홍콩, 대만동포들과의 음악협력이행회를 마련하였다. 홍콩과 대만동포들, 홍콩의 각계 이름있는 인사들과 중국 각지의 성 대만사우회 관공실과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회의 회원자 등 6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가까운 시일에 맞이하게 될 음악예술 축하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주제 중앙인민정부 령관공실 부유한지까지 해외대만 대만을 찾는 홍콩본토의 령행자수가 더욱더 많아졌으므로 예견되고있다. 대만과의 경제교류와 협조, 메야를 확대하여 민족적단합과 화를 키워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평화통일위업을 추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은 양반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의 평화적발전의 기본틀거리가 초보적으로 형성된것은 양반의 체질적조 호혜와 윈-윈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는데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양반관계의 평화적발전의 주제를 깊이있게 살피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 활발하여 홍콩-대만관계가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롭게 전진하도록 추진합으로 계속 협력관계가 질서있게 안정하면서 더욱 훌륭하게 발전하도록 추종할것이다.》

이밖에도 최근 제9차 방안관계연구토론회, 제14차 방안관계연구토론회, 제14차 방안관계연구토론회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본토에서 대만을 찾는 령행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사이의 관계전진정조의 하나로 되고있다. 올해에 대만당이 검토하고있는 중국본토와 대만사이의 개인 령행자조직까지 해외대만 대만을 찾는 중국본토의 령행자수가 더욱더 많아졌으므로 예견되고있다. 대만과의 경제교류와 협조, 메야를 확대하여 민족적단합과 화를 키워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평화통일위업을 추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은 양반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 숨길수 없는 비렬한 음모군, 테로범의 정체

지난해 1월 이란의 한 핵물리학자가 자기 집 부근에서 모터차에 실린 원격조종폭탄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로부터 1년이 될 올해 초 이란에서 이스라엘간첩망이 적발되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찰기관인 모사드와 관련연이 간첩망이 지난해 1월에 있는 이란핵물리학자에 대한 암살사건을 주도한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란경찰은 가선 10여명의 이스라엘간첩망이 적발, 체포되었다. 이란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인 살인, 테로범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란정보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살해하는 용제를 꾸민 모사드의 반인륜적이며 반인간적인 무모한 테로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모사드가 테로와 모략의 능수란다는것은 사실이다. 이는 사실이다. 모사드는 지금까지 이란을 주요공격목표로 삼고 각종 테로, 파괴행위를 강행하여왔다. 오늘 모사드의 주동 임무중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은 이란의 평화적활동을 저지, 파괴하는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부추김밑에 중동지역에서 날로 높아가는 이란의 영향력을 막고 이란의 국력, 특기는 평화적책들을 역해하는데 선진적인 힘을 냈고있다. 이스라엘은 경제체제, 군사적위협, 내부모략, 테로 등 반인관행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어는 이란의 평화적합치에 대한 군사적적설까지 공공연히 제창하고있다. 이스라엘의 반인관행등에 싸뜨르가 가장 악질적인 선봉대, 척후병으로 활약하고있다.

최근년간 이란에서 핵과학자들이 실종되거나 암살되었는가 하면 이란이 해외에서 수입한 핵기술자들이 제대로 숙직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도 모사드의 작간과 관련되었다. 지난해 1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부에서 있는 두타베의 테로공격으로 핵물리학자가 죽고 다른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이후에 모사드가 있다고 언론들이 주장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얼마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실험장치를 파괴하고 핵연료개발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컴퓨터비자를 시험하고 있는 사실이 미국신문 《뉴욕 타임즈》에 의해 드러났다. 신

본은 그것이 이란의 《핵계획을 파란》시키기 위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파괴적인 《스톡스네트》비루스에 대한 시험들이 이스라엘 네테브사막의 디모나핵센터에서 2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전하였다. 《스톡스네트》비루스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용된것들중에서 가장 정밀한 싸이버무기이라고 한다. 이것이 앞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데서 주되는 요인으로 될수 있다고 외신들은 평하고있다.

사실들은 이란의 평화적활동을 억제, 파탄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음모책들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학자들에 대한 비렬한 람칭, 암살음모책 등에 지못게 달려들고있는 목적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이란과학자들속에 위구시공공포감을 조성하여 이란의 과학기술진보와 국력강화를 가로막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테로와 파괴행위등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란의 반혁명분자들까지 길들여 써먹고있다. 이번에 직

본사기자